

기술문명시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에 대한 동서철학적 접근

- 모종삼과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박승현(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HK연구교수)

1.

철학은 질문함에서 시작한다. '질문함'이 없는 곳에는 철학이 있을 수 없다. '철학함'이 반성(反省)에서 시작한다면, 그 질문의 시점과 공간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가 될 것이다. 흔히 '동아시아철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경전의 말씀이나 이른바 고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훈고학적 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성'과 '공간성'을 무시한 질문에서 시작된 그러한 연구는 공허한 담론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철학함'이 단지 철학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나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동아시아 사회는 근세 이후 과학적 학문체계와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양문화를 수용한 이후 끊임없이 전통과 근대화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근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한다. 서구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에 추구의 대상인 반면, 전통적인 것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면을 많이 담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다. 서구 근대의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는 '주체'와 '합리성'이다. 서구 시민사회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자율적 개인을 근대 주체로 상정했는데, 이때 '주체'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해방의 가치를 내걸었던 계몽주의적 이성 주체를 말한다.

서구 근대문명이 이성과 개인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근대적 주체는 '고립적인' 개인이었지만, 항상 타자와 마주 선 존재였다는 점에서 타자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 주체는 이성적 능력을 갖지 못한 타자라 할지라도 타자와 마주 서 있기에 비로소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즉 유럽 중심의 이성 주체는 비서구의 야만적 타자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자를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이러한 근대적 주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주체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왜 지금 다시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팽창만을 지향하는 산업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치가 날로 약화되고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물질적 풍요와 소비를 통한 욕망 충족의 압박¹, 그리고 팽창적 발전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유능한 도구적 인간만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거대한 조직사회 안에서 인간들을 무한 경쟁의 구조 속으로 밀어 넣고 있으며,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어느 누구와도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을 어떤 누구로 언제나 대체가능한 '잉여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힘든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인간이 발명한 기계에 종속되고, 기계의 지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허무주의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기계의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남아,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빠른 행보가 기술의 통제안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에 주

¹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소비는 미덕'이란 구호를 내세우면서 기업들은 인간을 '소비 주체'로만 파악하고, 끊임없이 유행의 창출을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부단히 반복되는 광고를 통해 상대적 빈곤감을 조장하고 남보다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하려고 사람들을 급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목할 필요가 있다.²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나간 20세기의 유물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었던 '전체주의'의 망령이 다시금 세계 곳곳의 정치 현장에 되살아나 힘을 발휘하고 있어, 우리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인간다움의 실현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왜곡된 자본주의의 큰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주체적 자아', '깨어 있는 자아'의 회복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움의 실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3.

당대 신유학자 '모종삼(牟宗三, 1909-1995)'과 서양의 현대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동아시아와 서양에서 20세기란 동시대를 각기 치열하게 살았던 철학자들이다. 이들은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 전체주의의 망령, 마르크시즘의 충격,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존재 기반 불안, 경제적 관점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인한 실향(失鄉) 등 20세기의 비극과 고통을 몸으로 겪었던 철학자였다. 20세기란 혼란한 같은 시기를 거쳐오면서, 각기 다른 철학적·문화적 배경하에서 이 두 철학자에게 보이는 공통점은 바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人之所以爲人), 즉 '인간 존엄성'의 확보에 대한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모종삼은 동아시아의 유가철학에서 그 근간을 찾고 있다면, 한나 아렌트는 그리스의 폴리스 전통에서 근원을 찾아가고 있다. 철학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학자가 만나는 지점은 칸트에 있다. 모종삼은 칸트철학의 도덕철학에 중점을 두면서 유가철학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고, 한나 아렌트는 정치사상에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기반한 도덕실천에 기반하기 보다는 의식을 보다 명증하게 드러나게 하는 판단에 중점을 두고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

4.

모종삼은 중국 전통문화의 주류는 유학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²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책임원칙의 실천』(이유태 옮김), 숲, 2005, 50쪽 참조

불합리한 문화적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방향과 실마리를 제공하는 살아 활동하는 학문, 즉 '생명 학문'으로 이해한다.³ 그는 유학을 바탕으로 인간다움의 실현의 길인 '인(仁)'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한다. '인'은 일반적인 도덕규범이 아니고, 도덕실천의 원동인 '도덕심'이고, 인간다움의 실현의 원동이 바로 '인'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

모종삼은 철저히 도덕성에 근거를 두고 현실의 정치문제에 접근한다. 현대사회에 유학에게 새롭게 부여된 임무가 과거에 부족하게 다루었던 '외왕'의 문제 해결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외왕'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사공(事功)', 정치체제와 국가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정도(政道)', 물질문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국가권력의 문제, 정치·사회적 문제, 그리고 과학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이 요청되지만, 그 근원이 되는 '심성지학(心性之學)'을 배척할 수 없고, 도덕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모종삼은 '왕도'정치를 현대적 용어로 '개방된 사회(open society)'로 표현하고, '민주정치'를 실행하는 기반으로 이해한다. 현대에서 있어서 내성에서 외왕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유학에 대한 현대화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통로를 열어나가는 것이고 할 수 있다.

5.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과 그 핵심개념들의 정확하

³ 모종삼은 당군외, 서복관, 장군매와 함께 공동 서명하여 발표한 「중국문화선언-중국문화에 관해 세계의 인사들에게 알리는 선언」에서 서양인들이 중국문화를 연구하는 태도가 마치 골동품을 다루듯이 죽어 있는 유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중국문화가 아직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존재'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모종삼 등, 「중국문화선언」(중국문화에 관해 세계의 인사들에게 알리는 선언)참조]

⁴ 모종삼, 『道德的理想主義』, 『理性的理想主義』, 대만, 학생서국, 1985, 13쪽

게 짚어내어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하고, 이 현실의 특징적 내용들을 잘 포착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나 아렌트에서 '정치'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먼저 진행한다. 한나 아렌트는 우리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행위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지평을 제시한다. 한나 아렌트는 '사회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나 아렌트에게 '인간'다운 '행위'는 어디까지나 물질적 이해관계를 떠나 토론의 기예를 갖고 닦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폴리스적 '공적 영역'에서만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각자의 행동이 점차 균일화되어 '행위'에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인 '다원성'(plurality)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한나 아렌트가 고대의 '폴리스=정치적 공동체'에서 원형을 찾는 '정치'란 물질적 이해관계나 얽매임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폴리스'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선인가(=공동선)에 대해 함께 토론(행위)하는 것이다. '정치' '행위'에서 각 시민은 언어를 통해 서로를 설득하는 기예를 닦는 동시에 타자의 관점을 통해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운다. 상대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없다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토론의 모양으로 진행되는 '행위'에 종사함으로써 '다원성'의 여지가 넓어지고 '시민'들은 '인간다움'을 몸에 익힌다.

한나 아렌트는 도덕적 방식으로 정치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부정한다. 그녀는 전제주의의 정신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율적 이성애 호소하는 '도덕 주체'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에서 출발한다. 아이히만 재판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 서구전통의 '주체'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고대의 인간관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노동', '작업', '행위'이다. 이것은 인간의 활동성에 대한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을 통하여, 인간다움의 실현 영역인 '정치'가 현대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실종되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이 핵심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출현은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정당화시켜줄 '사회'의 출현을 불러왔다. 사회는 개인들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으로서 과거엔 '가정' 내로 유폐되어 있던 경제적인 것이 공적 영역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현대는 바로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의 장인 경제영역이 사회라는 이름으로 공적 영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적 개인의 자기중심적 사유가 결국 인간의 삶을 진보시킨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되던 고대와 달리, 현대는 사적인 안락을 추구하고, 이런 안락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부조하는 '사회'를 출현시킨다. 하지만 정치는 단지 사적 개인들의 이권투구의 장인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장치로만 간주될 뿐, '공공성' 자체에 대한 둔감함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현대적 사유는 인간의 삶을 유용성이나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만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주의적 사고의 출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결국 '정치' 실종으로 나타난다. 아렌트의 이런 주장은 정치가 다양성을 보장하고 또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공공성을 확장하지 않을 때, 정치의 목적을 사적영역의 보호에 국한시킬 때 구성원 전체가 공멸의 과정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6.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이란 이 순간은 각자의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닥쳐오는 미지의 시간과의 분투 과정인 것이다.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매순간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게 된다. 그 선택과 결단의 결과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전체 삶의 결과물을 이끌어 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다움'의 실현에 대한 물음도 바로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질문인 것이다. 주체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간은 한번 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방기할 수는 없다. 인격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그리고 나 아닌 타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실현할 것인가"

가?”라는 질문을 부단히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과 '존엄하다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 속에는 그 어떤 존엄성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과학성에 기반을 둔 학술적 논의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의 실현이란 것이 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그 속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 동물의 한 종에 속하지만 인간이 동물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실현에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자연명에서 위로 한 차원 높여야 하며 완전히 방종이 될 수 없다. 또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와 연계되어서 인간을 자연생명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하지만 자연생명의 해방만을 외치는 것은 방종이 아닐까? 우리 삶의 책임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인간이 인간다움의 실현의 의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시금 반성해보아야 할 것 같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종삼이 제기하는 '생명철학'과 한나 아렌트의 활동적 삶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